

01 교회소식

참 평안을 얻는 날

영적 설교와 충만한 찬양이 있는 예배, 믿음의 교제,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더욱 행복한 우리 교회의 주일 모습.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

선의 단계 (1)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차이가 있는데, 그 절대적 기준은 무엇일까?

03 기획특집

생기와 생명의 씨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오늘 날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본다.

04 간증

권능을 체험한 해외 증인들

시공 초월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소생한 미국 채해민 집사와 성결 복음으로 새로워진 말레이시아 도니 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568호 2013년 2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행복이 가득한 주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적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세 있는 말씀과 천국을 연상케 하는 예능위원회 찬양, 성도들의 섬김과 따뜻한 교제가 있는 주일, 성도들은 영혼의 만족과 천국의 행복을 느낀다(사진은 주일 2부 대예배 본당 모습). ② 성가대와 닛시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③ 주일 저녁예배 전 준비찬양. ④ 흰돌성가대 특송. ⑤ 새교우들을 위한 점심식사. ⑥ 연령별로 구분된 기관모임. ⑦ 휠체어 봉사를 하는 만민봉사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통해 얻는 참 평안이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이다.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즉 생명과 건강, 자녀, 직장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몸과 마음이 참된 즐거움과 쉬를 얻고, 사고와 질병, 시험 환난이 없도록 한 주간 보호받으며 복을 받는 것이다(사 58:13-14).

주일 오전 10시, 1부 대예배는 인터넷을 통해, 11시 30분 2부 대예배는 GCN 방송(이사장 이재록 목사)과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 세계 1만여 개 자립교회 성도들이 함께한다.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풀이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짚어 준다. 최근 진행되는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비롯, 단편 및 시리즈 설교를 통해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과 온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실생활에 적용해 축복받는 비결을 제시받아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

뿐만 아니라 성결한 자녀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기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성도들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찢려 쪼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다.

주일 대예배 후에는 행복한 성도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가나안선교회, 청년선교회, 해외교구, 중국대

교구, 농아인선교회, 주사랑선교회(새터민들의 모임) 등 각각 모임 장소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

오후 3시 주일 저녁예배 시작 전, 충만한 준비찬양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한다. 예배가 시작되면 성가대와 닛시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는 뒤 찬양과 현대무용, 전통무용, 위십, 연주, 국악, 발레 등 예능팀들의 다채로운 특송이 펼쳐진다. 이로써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한다.

우리 교회는 찬양 전문 닛시오케스트라를 비롯해 5개 성가대와 25개 예능팀, 20명의 솔리스트가 각종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연주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주일 2부 대예배와 저녁예배는 해외 성도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 성도들을 위해 7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몽골어)로 통역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수많은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말씀을 통해 발견된 자신의 부족함도 스스럼없이 털어놓으며 중보기도함으로 영적인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주일 성수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선의 단계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따라서 선을 행하려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선의 기준임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뜻 자체를 말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선에 대해 막연히 ‘착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성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양심에 따라 ‘선하다, 선하지 않다.’ 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마음으로, 각자의 배움이나 환경, 어떤 부모나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양심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욕하고 때리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맞대응하지 않고 참았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보고 ‘착하다, 선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 자체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오히려 감동을 주는 선과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기뻐하십니다.

2. 악으로 대항치 않고 감정을 눌러 참는 선의 1단계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무 죄도 없는 여러분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때 똑같이 대응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며 교양이 있기에 잠잠히 참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불편한 마음을 꺾고 눌러 참았지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온유해 보여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에 여전히 악이 있기 까닭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맞대응해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에는 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잠언 8:13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3.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없는 선의 2단계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습니다. 속이 상해 껍죽 눌러 참는 것도 없고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도 품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는 마음에 악이 없는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순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을 다스리며 선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결국 순간의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간음했다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꿇고자 했지요. 이처럼 선한 요셉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18에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 즉 선의 2단계 마음을 이뤄야 원수 마귀 사

단이 송사하지 못하고 시험 환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원수 마귀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순종해 악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보호받거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만 이룬다 해도 그 선이 빛으로 역사돼 자연히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임자로 있는데 아랫사람의 실수로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경우 회장님 앞에서는 “제 탓입니다. 제가 더 돌아보지 못한 까닭입니다.”라고 민망해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잘못된 아랫사람에게 책임지라며 압박하거나 혹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는 않는지요.

선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도 중심에서 자신이 책임질 줄 압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깨우쳐 주되 힘이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최선을 다해 일을 풀어 나가지요. 그러니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 더 하나 돼 일을 잘 이루게 됩니다.

또한 자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책망 듣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 다행이다.’ 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서 속으로 함께 지적하지는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이때도 ‘내가 도와줄 걸...’ 하며 미안해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하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되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지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을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론 손해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항상 선한 자의 손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악이라 하시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라 해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선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시험 환난이 떠나고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요.

과연 선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의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한 주간 뉴스만 보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2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지킬 수 없습니다.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8(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일주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유료로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생기와 생명의 씨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관 과연 무엇일까? 그 생기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도 작용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에게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 바란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근본 된 능력, 생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첫 사람 아담에게 생기(生氣)를 불어넣으시자 살아 움직이는 생령이 됐다.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힘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큰 군대가 됐다. 7년 환난 중에 순교한 두 증인이 살아날 때도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한다(계 11:11). 이처럼 생기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본임을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천지창조의 역

사를 베푸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웅장한 소리를 머금은 영롱한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요 1:1, 요일 1:5).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인간 경작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시작하셨다. 따라서 그 근본은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며 이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 이처럼 근본의 빛과 소리에 담긴 하나님 능력이 바로 생기로 역사하는 것이다.

생기를 받은 아담,
노화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적 존재

첫 사람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에 하나님의 근본 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령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육의 몸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근본 된 능력인 생기가 담겨 있기에 죽지 않는 영적 존재였다.

이 생기는 에덴동산에서 낳은 첫 사람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

동으로 전달됐다. 잉태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청년의 때를 조금 지나면 성장이 멈췄는데, 이후에는 노화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근본 된 능력인 생기가 온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중심 세포핵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이다.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인
생기의 흔적, 생명의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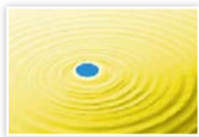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거둬버리시고 흔적만 남기셨다.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이다.

그런데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에게는 생명의 씨가 전달될 수 없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잉태돼 6개월째 됐을 때 태아에게 생

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심장의 한 세포핵에 심어 주셨다. 영안이 열려 보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빛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육에 속한 몸 안에 심겨진 상태를 바다의 부표에 비유할 수 있다.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는 계속 바뀌어도 생명의 씨가 심겨진 위치는 고정돼 있다. 피가 심장으로로부터 나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의 한 세포로부터 온몸으로 퍼져서 모든 세포를 조절할 수 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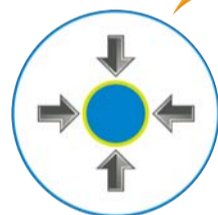


피가 심장에서부터 나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의 한 세포로부터 온몸으로 퍼져서 모든 세포를 조절할 수 있다.

*푸른색은 생명의 씨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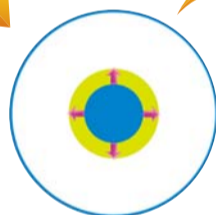


→ 육의 기운
→ 영의 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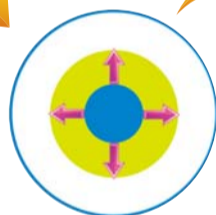
죽은 영

영 안에 담겨 사람에게 심겨진 생명의 씨는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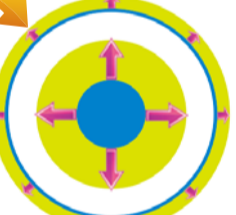
살아난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씨가 깨어나 영이 살아난다.



성장하는 영

생명의 씨가 깨어나 영이 살아난 뒤에는 영의 성장을 위해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해야 한다.



영, 온 영

영이 성장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면 몸이 육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인해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그림2 참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씨가 활동하기 시작한다(요 3:6).

싹을 틔운 씨앗은 물과 햇빛을 공급받아야 잘 자라는 것처럼 생명의 씨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한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영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그림3 참조).

영이 성장해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핵을 덮을 만큼의 크기가 되

면 영의 사람이요, 그보다 더 커지면 온 영의 사람이다. 영의 크기가 세포핵을 덮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사람의 몸이 육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커지면 몸의 기능 조절이 온전히 영의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속히 영과 온 영을 이뤄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GCN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2 February 謹賀新年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3. 2. 10~2. 16>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신년기도제목 말씀 1-4
- 사랑장 1-5
- 공부 질하는 비결 10-11
- 믿음의 분량 15-19
- 창세기 강해 14-18

GCN TV설교

- 육과 영 11-13 (이수진 목사)
- 노력하는 삶 (이미영 목사)
- 아름다운 사람 (정구영 목사)
- 아름다운 소망 (이진 집사)
- 'GCN TV특강' 일교교회 3-7 (빈금선 권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10-14
- 찬양과 경배 60 (신년특집)

간증 프로그램

- GCN 간증스페셜 (정준영 형제/한미경 자매)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소생할 가망이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채혜민 집사 (미국 뉴욕인터내셔널 만민교회)



첫째 딸 송이, 둘째 딸 한이와 함께

2005년, 저희 가족은 미국 뉴욕으로 이민왔습니다. 2006년 7월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뉴욕 연합대성회’가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려 참석했지요.

3일간 회개와 치료, 기적의 현장에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이때 저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도 성장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요.

거듭된 수술, 과다출혈로 소생 불가능했으나

2012년 초, 12년 만에 둘째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4개월까지 자궁 안의 폴립(용종)으로 인해 하혈이 잦았고 응급실에 가는 일이 종종 생기곤 했지요.

저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배에 얹고 인터넷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내 하혈이 멈췄고, 열 달 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11월 6일 오전 11시경, 저는 둘째 아이 출

산을 위해 제왕절개술을 했습니다. 첫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했기에 둘째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수술은 두 시간이나 더 걸렸고, 마침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첫 아이 출산 후 오로(출산 후 나오는 분비물)가 전부 나오지 않아서 잔여 분비물이 자궁과 방광에 고름과 유착돼 있었던 것입니다. 태반과 자궁, 방광과도 심하게 유착이 돼서 태반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어렵게 태반을 떼어 냈으나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고 무력해져서 과다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9팩가량을 수혈하며 자궁 내 풍선압박 지혈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날 밤 9시경, 자궁동맥혈관색전술(지혈을 위해 자궁동맥을 막는 시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출혈은 계속 됐습니다. 급기야 밤 10시경, 자궁적출수술(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방광과 유착돼 있는 자궁을 조심스럽게 드러내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방광 손상 부위를 수선했지만 그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배는 뽕뽕하게 부어올랐습니다. 결국 11월 7일 오전 11시경, 응급개복수술을 했습니다. 개복해 피를 제거하고 방광 뒤쪽에 나 있는 여러 구멍을 발견하고 수선했지요.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공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살아나

뉴욕인터내셔널 만민교회 담임인 심 제임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금식기도에 들어가셨고, 한국에 있는 가족도 금식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희를 위해 대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상기도 중인 당회장님께 저의 위급한 상황이 전달됐고, 저를 사랑하시는 당회장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시니 즉시 살아난 것처럼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로 그 시간에 출혈 부위가 지혈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환자실에서 이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며 놀라워했고,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했지요. 이 일은 병원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11월 27일 퇴원한 후 저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믿음을 갖지 못했고,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뿐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 복음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도니 이 성도 (동말레이시아 시부)

2010년 11월, 저는 루카이청 사장님에게 ‘만민뉴스’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 실린 기사 중 하나님 권능이 담긴 간증도 놀라웠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답답해하곤 했는데, ‘만민뉴스’에 게재된 설교는 이해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대 평소 의견 대립이 잦고 불화했던 저희 부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루카이청 사장님을 통해 정 드보라(말레이시아 만민출판사) 사장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 뜻을 밝히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우상숭배한 일을 회

개하고 집에 있는 용 등을 새긴 우상들을 버렸습니 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고 가정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찾아 왔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GCN 방송을 시청하고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지옥』 등 당회장님 저서를 읽으면서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4월 11일, 인터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성도로 등록한 저는 2012년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해 만민 하계수련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성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만민선교회를 조직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들과 ‘만민뉴스’를 통해 뜨겁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괴천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군산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변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8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